

윤서에게

안녕? 나는 13살 여학생 김하영이라고 해.

'모두 웃는 장례식'이라는 책을 통해 네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 죽음이란 정말 두려운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하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란 슬픔과 두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걸까?

나는 너의 할머니께서 생전 장례식을 하시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하다니, 처음에는 이해조차 하기 힘들었지. 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보니 생전 장례식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나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해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네 친구 혜원씨도 알했듯이, 죽고 난 후 장례식을 치른다면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 살아 있을 때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아직 못했던 말들을 주고받으며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

윤서야, 끝까지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어떤 기분이니? 나는 슬프고, 미안하고, 고마웠고……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알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분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직접 겪었던 너는 정말로 슬펐겠다. 그래도 나는 네가 할머니의



죽음을 잘 이겨내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했지만 결국엔 할머니를 위한 영상편지를 만들었으니까. 할머니께서 영상편지를 보셨을 때 정말 감동받으셨을 거야.

나도 언젠간 가족들과 친구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겠지? 아까도 말했듯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상상이 안 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슬픔보다 훨씬 큰 슬픔일 것 같아. 그 때 나도 너처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니 기분이 참 묘하다. 앞으로는 네게 밝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2022년 7월 30일

하영이가

